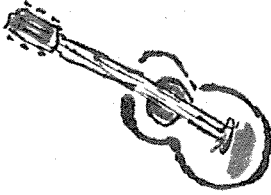


귤

도 상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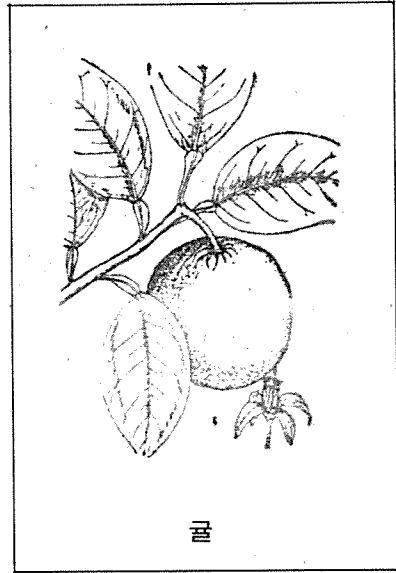
귤나무는 온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크기가 3m가량 자라는 상록의 작은 교목이다.

잎은 호생하고 또는 장단형이며 열병의 양쪽에 작은 날개가 있다.

6월에 흰색의 작은 꽃이 피고 열매는 편구형의 장과를 맺으며 처음에는 녹색이고 11월이 되면 익어서 등황색이 된다.

우리나라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주로 재배되며 서울 부근가정에서 겨울에 온실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Citrus nobilis* Maki-



귤

no (Rutaceae 운향과에 속한 식물이다) 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먹는 귤의 생약명은 *Aurantii nobilis* Pericarpium 진피(陳皮)라고 널리 부르고 있다.

일명 꾀피라고 하는 것은 귤나무의 원숙한 과실의 껍질을 벗겨 말린것으

로 특이한 방향성이다. 열매가 익기 전에 벗겨 말린 것을 청피(靑皮)라 하고 익은 뒤에 말린 껍질을 ꮀ피(橘皮) 또는 진피(陳皮)라고 하여 약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 ꮀ의 원산지는 본래 아시아의 온대지방과 열대지방중에서 인도 히말라야 등지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배되고 있다.

ꮀ(陳皮)의 성분은 Limonene, hesperidin, neohesperidin 등의 정유성분이 많이 함유되고 있다. 그 이외에 수분, 단백질, 탄수화물 외에도 구연산이 많으며, 또한 다량의 비타민C와 소량의 A가 들어 있다.

특히 껍질에는 과당(果糖) 외에도 향등유(香燈油)등이 들어 있어 식품의 재료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 ꮀ정, ꮀ술등이 있으며 ꮀ피를 주재료로 하는 ꮀ피차가 있고, ꮀ나무의 꽃으로 만든 ꮀ화차(橘花茶)도 있다. 차로 끓일 때는 신선한 ꮀ피를 택하여야 좋다.

특히 근래에는 농약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독(中毒)의 우려마저 없지 않다.

깨끗한 ꮀ피를 썰어 10g은 약탕기에 넣고 물 2그릇을 부어 천천히 달인다. 이때 약간의 생강과 대추를 넣으면 더욱 좋고 껍질 내부의 백질(白質)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이 ꮀ껍질의 백질은 쓰고 또 ꮀ을 만들때도 이것은 제거시켜야 한다.

ꮀ피는 시고 온하여 독이 없기 때문에 ꮀ피차로도 즐겨 마시고 있는 것이다. 이 차도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2~3회 마시면 좋다.

ꮀ피차는 비(脾)와 위(胃)를 튼튼히 하며, 가슴속의 열을 내리게 하고 구토(嘔吐)와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 이외에 설사에도 좋고 소화불량도 잘 낫게 한다. 이뇨(利尿)작용이 있어 방광염(膀胱炎)등에도 효과적인 뿐만 아니라 촌충(寸虫)등에도 좋다.

특히 기침이 심할 때는 ꮀ피에 약간의 감초(甘草)를 넣고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끓인 물과 함께 약간씩 마신다.

말꼭질할 때는 ꮀ피와 죽여(竹茹)를 함께 달여서 마신다.

늑막염에는 ꮀ피를 약간 볶아 분말로 하여 물에 달여 마신다.

생선(魚類)중독에는 ꮀ피를 진하게 달여 공복에 한공기씩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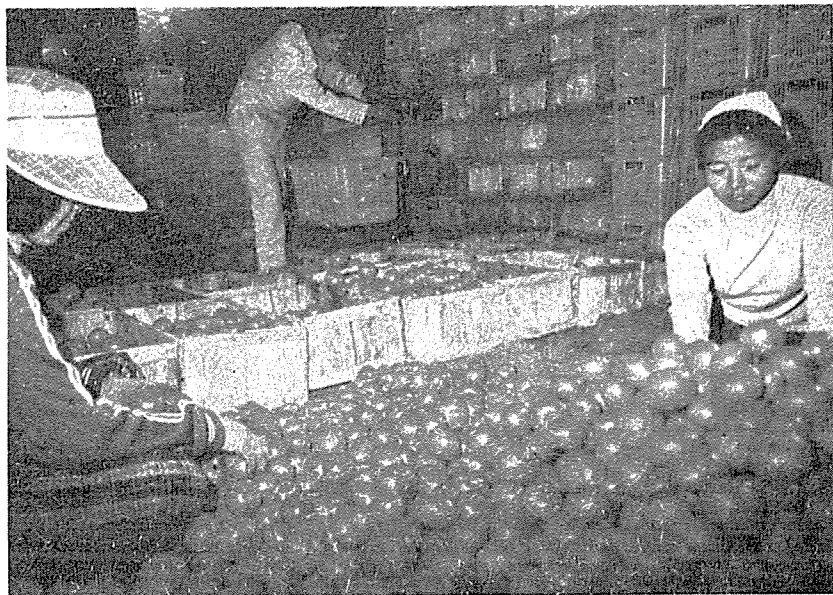
유선염(乳腺炎)에는 ꮀ에 감초를 약간 넣어 달여 마신다.

코감기에는 ꮀ 1개를 불에 구워 먹으면 유효하다.

계식중독에는 ꮀ피의 흰 줄기를 때어버리고 달여 탕을 마시면 좋다.

중이염(中耳炎)에는 진피를 각 1돈을 태워 분말하여 컷 속에 조금씩 넣는다.

소염(消炎)에는 ꮀ피 반량을 볶아 분말로 하여 열탕에 타서 마신다.



이 이외에 식후 소화가 안되고 헛배가 부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때, 4계절의 잡병, 구토멀미, 사지냉증, 속이 뒤집힐때, 위와 배가한냉(寒冷)할때, 배가 차고 뭉칠때, 감기, 몸살, 기침, 두통, 사지두통일때, 심장쇠약, 숨이 찰때, 초조하고 불안할 때, 양 옆구리가 아프고헛배가 부를때, 대변 불순, 화를 내어 답답할때, 음주후 속이 답답할때, 입술이 부르트고 부스럼이 생겼을때, 술이나 음식을 토하거나 입안이 마를때, 변비, 변이 굳게 될때, 주독으로 코가 빨갛게 될때, 콧병 등에 좋다고하며, 특히 vitamin C가 있어 내용에 좋고 중독에 해독제로 좋다.

토끼 적출장관에 대하여 진피 수침

액은 농도에 비례하여 장관의 자동운동이 억제되었다.

혈압은 상승되고 혈관 수축작용이 있다. 껍에서 hesperidin의 성분은항혈관 삼투성 인자이며 모세혈관 강화 등 vitamin과 같이 쓴다.

한방에서 진피(陳皮)는 방향성건위진구, 진해 거담약으로 쓰인다.

citrus sp. 속 식물인 귤 등의완숙한 열매의 과피를 압착하여 얻은 정유를 오렌지유(oleum our antii)라하며 정유분을 취하고 남은 찌꺼기를 수증기 증류한 것을 밀감유(蜜柑油)라하여 구별한다. 모두 교미·교취·부향화 등으로 쓰인다.

(필자 = 동덕여대 약학과 교수)